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44호

2013년 4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용 자동차 중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모든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 ①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를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00000) 차량
- ② 본인용 차량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 본인만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 ③ 보호자를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의 권익증진



HEADLINE

뉴스 8P

장애인 보조기 신체의 일부 아니냐?



특집 12P~13P

세계 장애인 휠체어 육상 '별들의 전쟁' 이 시작된다



인물 14P

"피카소처럼 멋진 화가가 되고 싶어요"



건강 19P

운동으로 병을 고친다!



세계 장애인 마라토너들의 감동의 레이스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개최

5월 4일 잠실종합운동장...국내외 최정상급 선수 출전

제21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THE 21st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가 오는 5월 4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지난 21회 대회 플코스 경기 모습.)

세계 장애인 마라토너들의 축제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오는 5월 4일 오전 8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국제장애인올림픽 육상위원회로부터 공인을 획득한 국내 유일의 국제장애인 스포츠대회로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장애인 체육의 저변확대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란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총 13개국 3천여명의 선수들이

42.195km 플코스와 21.0975km 하프코스, 5km 코스에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5km 종목은 전국의 휠체어 생활체육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쟁부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부문(비경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휠체어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인 캐나다의 조시 캐시디(Josh Cassidy, 29), 지난해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자인 일본의 호키노우에 코타(Hokinoue Kota, 39), 한국 장애인 육상의 간판스타 홍석만(38) 등 국내외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세계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휠체어마라톤 서울대회의 경기코스는 경치가 아름다운 것은 물론 좋은 기록을 내기에 적합한 코스로 알려져 있다"며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는 지장협과 대한장애인체육연맹,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한국방송이 후원하며 신한금융그룹이 협찬한다.

(12~13면에 계속)

아·태장애인연합 서인환 의장

정부가 주는 장애인의 날 선물

장애인의 날이 제정되고 초창기에는 체육관에 장애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열반이나 총리가 축사를 하고, 도시락을 먹고 체육관 주변에서는 진시부스를 만들어 축제 분위기를 띄워서 행사를 하였다.

이러한 행사는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들을 초청하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에 모이는 것이 일종의 복원이며, 도시락이나 먹고 위로나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을 하곤 했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선물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도시락을 주면서 고위급 인사들의 의전에 장애인들이 들러리 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분을 느낀 것이다.

이제 장애인의 날이 33회를 맞았다. 지금도 항상 장애인의 날이 되면 각 부처마다 무엇인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대국민 정책 발표를 하곤 한다. 어떤 부처는 연초에 발표할만한 장애정책을 머무어 두었다가 장애인의 날에 하기도 하고 12월 13일 장애인복지 예산안 발표를 왜 연초가 아닌 장애인의 날에 마치 며칠 전에 결실을 하고 들려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며 발표하는지, 장애인의 날에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자랑하고 국민들에게 드러내는 날로 생각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다.

요즘 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자체별로 축제를 하기도 하고, 단체별로 하기도 하여 정부의 행사는 사실상 위주로 하여 과거보다는 소규모로 단체장을 초청하여 하는 행사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종의 기념식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방하고 공로가 많은 장애인들을 포상하는 행사에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강조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모든 언론이 장애인을 주제로 한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 기회를 이용하여 홍보

전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복지부는 올해에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발달장애인 법을 금년 내에 제정하겠다는 것과 중증장애인 보호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단계적으로 하여 우선 중증과 경증으로 개선하여 등급제를 개선하고 장애인정책체계기회를 운영하겠다는 것, 건강권보장을 강화하여 의료 서비스를 권역별로 추진하겠다는 것 등을 발표하였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대선공약이기도 하였고, 국정과제이기도 한 것인데, 장애인의 날에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재확인과 홍보효과일 수도 있다. 아니면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날에 자신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안을 내고 부정부패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예방 주사격 입장표명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날을 코앞에 두고 직전에 장애인정책체계기회단 회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정부가 항상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가 되면 며칠 전에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만들어 회의를 시작했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 늘 다른 때에도 그러했다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나오면 '그 문제는 연구가 끝나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정부는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며칠 전에 회의를 시작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처하도록 정부는 이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때를 모면하고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보아왔다.

보통 회의를 하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심의를 시작한 단계이므로 회의 내용을 비공개 하기도 하고, 아직 언론이나 장애인들에게 알려주지 못하도록 조차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번 장애인정책체계기회단의 회의에 대하여는 정부가 먼저 첫 회의를 마치자마자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였다.

사실 회의일정을 정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회의 스케줄이나 다룰 내용도 잡지 못하였으며, 등급제 폐지의 대안방향도 잡지 못했다. 단지 다음 회의날짜를 정하였고, 기획단 단장을 정한 것이 회의결과와 전부이다.

등급제는 서비스의 등급이 아니라 인간 자체에 등급을 정하는 것으로 낙인을 찍는 것과 같고, 의학적인 관점이 필요한 서비스의 적격 심사와는 달라 목적이 서비스를 주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서비스의 필요성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장애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기업이나 공공기업의 할인제도가 발명되어 있다. 전기요금, 횡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감면혜택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차등 혜택을 주어왔는데, 등급이 없어지면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참석한 기획단원들은 각자가 의견이 달랐다.

민간기업이 주면 감면을 이제 정부의 부담으로 하여 현금으로 주자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 서비스를 더 주는 것이 두 단계 정도로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왔으니 6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간소화하여 등급화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증과 경증도 의학적인 관점이고 낙인은 마찬가지로 입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적격심사만 하면 등급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증과 경증의 차이는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에 맞추어 왔던 것이므로 모든 장애인에게 주도록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등급제 폐지의 목적이므로 등급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얼마나 정부가 예산을 더 내어놓을 것인지를 정해야 등급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

중증 장애인들은 등급제 폐지가 진중화된 서비스의 분산으로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지거나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는 않을까, 등급화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등급제 폐지도 그러한 일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보도자료에는 등급이라는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별화하여 개인별 급여제로 필요한 서비스를 주도할 하는 것이며, 서비스의 양이 축소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심시키는 문구도 넣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획단에서 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한 논의가 단기기간이면 되니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는 단원도 있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원도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7월부터 국민들의 복지를 개인별 급여로 전환한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장애인만은 대통령 임기 말까지 연구를 하여 임기 내에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끝 무렵에 제대로 지키지 않고 넘어가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과거가 그러했었기에 장애인들은 벌써 여러 번 실패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반드시 선물을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선물은 따로 하는 것이어서 먹을 수도 없고 배부르지 않고 대부분 그러한 선물들은 앞방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장애인들과 실제로 대화를 해야 하는 시간엔 그들을 모아 놓고 장애인들과 대화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 반영하겠다고 자랑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획단 회의에서 정부는 아무런 계획도 방향성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기획단에서 정하는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확정된 스케줄을 발표하면, 기획단은 형식적인 것이고, 정부가 먼저 치고 나가 발표를 하여 그런 길로 가도록 조정하고 리드하겠

소리로 읽는 새보람



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출범한 정부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2년 전 이러한 기획단은 이미 존재했는데, 연구 용역을 주었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시간을 다 보내었고,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하였다가 연구 결과는 발표나 토론과정 없이 다시 새로운 기획단을 만든 것이기에 여러 우려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쪽에서는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회의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어 버린다면 문제이다. 상주들이 한쪽에 모여 장지를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조회는 운구차를 맡고 있는 시내를 벗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2단계 등급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과는 상반되게 이미 치고 나가고 있는 것으로 결국 알아서 할 일을 회의는 왜 하는지 하는 무용론에 빠지게 만든다.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장애인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희망을 주는 것에 희망보다는 오히려 평소 잊고 있었던 실망을 재확인하여 삶의 의지를 잃고 있다는 현상임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경찰청과 장애인 성폭력 예방·근절 위한 MOU체결

간담회도 진행...김정록 중앙회장 “앞으로 실천이 중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가 경찰청과 함께 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적극 나선다.

지장협을 포함한 6개 장애인 단체와 경찰청은 3월 18일 서울 경찰청에서 ‘장애인 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장협은 이들 기관과 함께 장애인시설과 재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공동으로 전개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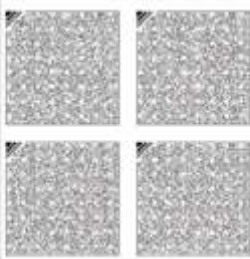
지장협 의 6개 장애인단체가 3월 18일 경찰청과 장애인 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장협 김정록 중앙회장은 “장애인 중에서도 자기표현이 어려

운 지적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시설을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지장협도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장애인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3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지장협은 4월 10일 대전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3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4월 10일 대전유성

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3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지장협이 진행했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회계 및 업

무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결산(안)’, ‘201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이 상정, 원안대로 가결됐다.

‘정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각 도 외에 특별자치시에도 시·도협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협회 회장 보궐 선출과 회장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정록 중앙회

장은 이날 총회에서 “언제나 회생을 마다하지 않는 대의원 여러분들이 있어 지장협이 장애인복지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장협은 물론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록 중앙회장이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장애인 구직자 위한 교육 자리 마련

면접 전략 강의 및 현장면접 진행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협)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공동으로 3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2013년 취업 전 교육’을 개최했다.

장애인 구직자 40여명이 참여

한 이번 교육에서는 CS 컨설팅트 김정근 강사의 ‘성공하는 면접 전략’을 주제로 한 강의와 이력서 제출 시 필요한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가 진행됐다.

또한 교육 후 현장에서 국가인

접도 함께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 참가해 현장면접까지 본 한보람 씨(24세, 지체장애5급)는 “면접 전략에 대한 교육을 통해 평소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다”며 “교육이 실제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교육을 주최한 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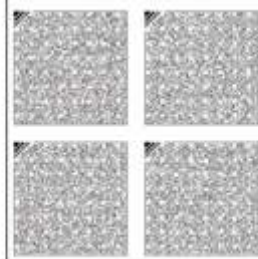


3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취업 전 교육’에서 CS 컨설팅트 김정근 강사가 ‘성공하는 면접 전략’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연계해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경북지역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실무자들 한 자리에

‘2013년 제2차 시·군 민원 편의증진 실무 연수회’



2013년 제2차 시·군 민원 편의증진 실무 연수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장재권, 이하 경북협회)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청송 주왕산 온천 관광호텔에서 '2013년 제2차 시·군 민원 편의증진 실무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경북지역 23개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회에서는 해피랜드 김대석 회장의 '자원봉사 이대로 좋은가', 해피로드 컨설팅 정원

정 강사의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교육', 포항성모병원 김신영 강사의 '민원상담사업 힐링스토리'에 대한 강의가 실시됐다.

또한 박귀룡 수석부회장의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제정 경로 및 방법론'에 대한 특별강연도 펼쳐졌다.

경북협회 장재권 협회장은 연수회 참가자들에게 "경북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마음을 다하는 실무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자활실천대회 및 합동결혼식 개최

모범시민 및 자원봉사자에 표창장 수여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들의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부부의 합당한 생활을 돕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전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윤석연, 이하 대전협회)는 3월 26일 '제15회 대전광역시장애인자활실천대회 및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자활실천대회에서는 장애인 권익신장에 기여한 모범시민과 자원봉사자 36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 벨리댄스 및 초청 가수의 노래 공연이 진행됐다.

합동결혼식에서는 대전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의 후



3월 26일 제15회 대전광역시장애인자활실천대회 및 합동결혼식에서 결혼식을 올린 부부들.

원으로 10쌍의 장애인 부부가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들은 결혼식이 끝난 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대전협회 윤석연 협회장은

"이번 행사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일부: 2013년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정기대의원총회
29(금) 11:00 장소: 학암연회장 6037



대구협회는 3월 29일 2013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2013년 정기대의원총회 열려

장애 학생 가족에 장학금도 전달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이하 대구협회)의 '2013년도 정기대의원총회'가 3월 29일 덕영치과 6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 사업 및 감사 결과, 2013년 사업 예산에 대한 보고와 함께 장애인당사자 단체로서 협회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구협회 김창환 협회장은 "올 한해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외된 어려운 장애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지역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대구협회와 입당장학회는 각각 100만원, 140만원을 장애 학생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44호 2013년 4월 20일

회 장·발행인/김정록 편집장/이경선 기자/김금주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15회 빛고을 전국장애인가이트볼대회 성료

33개팀 350여명 선수 참가...경남진해팀 우승



2013년 제15회 빛고을 전국장애인가이트볼대회 경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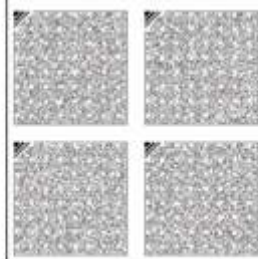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재홍, 광주협회)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동안 광주전천후게이트볼경기장에서 '2013년 제15회 빛고을 전국장애인가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광주협회는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재활 의지 고취를 위해 매년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선발된 33개팀 350

소리로 읽는 새보람



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했다.

대회 결과 경남진해팀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고 준우승은 전남 보성녹차팀에게 돌아갔다. 공동 3위는 전남영광팀, 서울영등포팀이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김정록 중앙회장을 비롯한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송경종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도서지역 장애인 위한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

무료 건강 검진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중, 제주협회)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

제주협회는 3월 22일 서귀포시 대정읍분회 사무실에서 '2013 이동민원 상담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체장애인 6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 및 이·미용 서비스, 읍·면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등이 실시됐다.

제주협회 부형중 협회장은 "올해 말까지 추진도와 우도에



제주협회는 3월 22일 도서지역 장애인을 위한 '2013 이동민원 상담사업'을 실시했다.

서도 이동민원 상담실을 운영할 것"이라며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도서지역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에 의료혜택 제공 해맑은병원과 MOU 체결

진료비 할인 및 장애인 우선 예약제



전북협회와 해맑은병원의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식' 모습.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곤, 이하 전북협회)가 지체장애인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해맑은병원과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협회 회원 및 가족은 해맑은병원에서 비급여 포함 30% 할

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맑은병원 정용우 원장은 "앞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이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해맑은병원은 장애인들이 병원을 찾아 진료를 위해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우선 예약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편의시설시민촉진단 요원 직무교육 실시

실무능력 향상 교육 및 현장실습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편의시설시민촉진단 요원 직무교육이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에어포트콘도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촉진단 요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강원도내 18개 시·군지역에서 활동 중인 108명의 요원들이 참석했다.

교육은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를 위한 실무 능력 향상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진행됐다.

한편 강원도편의시설시민촉진단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선정했다.

충남장애인농구 클럽대항전 개최

아산휠스파워농구단 준우승 차지



4월 6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13년도 충청남도장애인농구 클럽대항전' 경기 모습.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은 4월 6일 충청남도장애인농구협회와 공동으로 아산시민체육관에서 '2013년도 충청남도장애인농구 클럽대항전'을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장애인농구의 저변확대와 선수기량 증진,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대회는 휠체어 부문과 지적장애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휠체어 부문에는 아산휠스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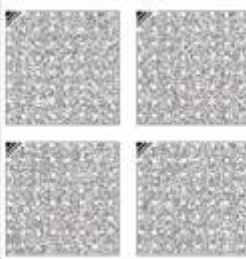
농구단, 대전휠체어농구단, 백석대학교농구단, 중부대학교농구단, 아산시장애인복지관등호팀이, 지적장애 부문에는 아산드림휠체어, 성도복지원, 천안점프농구클럽, 홍성지적장애농구팀이 참여했다.

경기 결과 휠체어 부문에서는 백석대학교가, 지적장애 부문에서는 아산드림휠체어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돌아가는 MVP는 아산휠체어농구단의 최운선 선수에게 돌아갔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작

소리로 읽는 새보람



년과는 또 다르게 향상된 선수들의 실력을 직접 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팀들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한화테크엠 아산공장, 아산장애인체육회, 허니머쉬, 가마로강정이 후원했다.

제1기 '따뜻한 손' 명예기자단 활동 돌입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담아낼 것"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관보 "따뜻한 손" 제작에 참여할 제1기 명예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복)은 3월 29일 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에서 명예기자단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제1기 명예기자단은 현직 칼럼리스트, 시인, 장애아동 보호자 등 5명의 복지관 이용고객으로 구성됐다.

한 명예기자는 "복지관 이용



의정부장복 김인숙 관장과 제1기 '따뜻한 손' 명예기자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객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연이 담겨 있다"며 "이들과 함께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

는 이야기를 관보에 담아낼 것"이라고 활동 각오를 밝혔다.

비장애학생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실시

"장애인에 대한 열린 마음 가져주길"



3월 15일 김천상업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장애이해 교육 모습.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은 3월 15일 김천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비장애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돕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천장복 박선하 관장은 "장애인

는 단지 신체적 차이가 존재할 뿐"이라며 "비장애 학생들이 이를 깨닫고 장애인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장애인구 수는 286만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명 이상이 증가했고 장애 발생 원인이 선천적 요인보다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이 대부분"이라며 "후천적 장애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들볼링클럽', 벽산사회봉사단과 친선경기 가져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위한 지원금도 전달받아



'마들볼링클럽'이 3월 30일 벽산사회봉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전달받았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성, 이하 북부장복)의 볼링동호회 '마들볼링클럽'은 3월 30일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건영오피스 볼링센터에서 벽산엔지니어링 임직원으로 구성된 벽산사회봉사단과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날 벽산사회봉사단은 장애

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들볼링클럽'에 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마들볼링클럽 조현숙 총무는 "동호회 회원들이 매주 모여 실력을 갈고 닦고 있지만 아마추어를 위한 대회가 많지 않아 실력

을 집결할 기회가 적었는데 벽산사회봉사단 덕분에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벽산사회봉사단은 북부장복과 함께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발제연,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문화제 개최 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천막 농성 돌입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연)는 3월 21일 광화문 동광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문화제'를 개최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발달장애인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발달장애인은 학대, 성적·경제적 착취, 인권침해 등에 있어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일반인에 비해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지만 장애인 관련 법률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발제연은 지난 2월 전국의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 단체들과 함께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무장했고 그 성과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를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문화제' 모습.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행사가 열린던 날 오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입부보고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제연은 "정부는 예산부족과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여전히 법제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문화제를 기점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

장하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연은 행사가 끝난 뒤 여의도 이룸센터 앞으로 자리를 옮겨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천막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옥진 울산지부장은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 입장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조속하게 통과되면 바람"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문화제" 현장을 찾아 참여자들과 뜻을 함께하고 3월 27일에는 여의도 이룸센터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농성자들을 격려했다.

"발달장애인! 우리가 말한다"

발달장애인 법 제정 당사자 토론회 열려

발달장애인 법 제정과 관련해 발달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는 3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발달장애인! 우리가 말한다'를 주제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교육, 일, 결혼과 자립, 처벌금지 등에 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주제발표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자립에 대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발언이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 제4위원회' 신현숙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법 제정 당사자 토론회가 3월 25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다.

도 비장애인과 같이 어른이 되면 부모와 떨어져 살 수 있어야 한다"며 "비장애인처럼 돈을 많이 벌기 힘든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열형국 변호사와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 윤혜영 집행위원장,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김치훈 법제위원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법 제정 및 실행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특성과 욕구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됐다.

열형국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발달장애인을 위해 법제정에 앞장서

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그 이전에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혜영 집행위원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발달장애인이 바라는 행복은 비장애인이 바라는 행복과 똑 같다"며 "발달장애인이 나와 비슷한 것을 바라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김치훈 법제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발달장애인법 최종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사회의 많은 관심과 배려, 제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복지체계 구축으로 발달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장애인 보조기 신체의 일부 아니다?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일부를 잃어 의족을 착용하게 된 절단장애인 양태범 씨(지체장애 3급).

김포공항에서 승객들의 짐을 옮겨주는 포터 일을 하던 그는 장애인이 된 후 육체적 노동이 어려워 회사를 그만뒀다.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 자신의 소개로 여협사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게 됐다.

장애인이 자신을 배려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 양씨는 휴식시간도 마다하고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2010년 겨울, 아파트 주변 제설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부상을 입었다. 우측 의족도 손상됐다.

새 의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1주일을 기다려야 했지만 결국 할 수 없어 목발 등 모든 기구를 사용해 힘들게 1주일을 버텼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공단에 신고해 보험받아야 한다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복지공단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보상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공단은 대외부 상처는 승인해주지만 손상된 우측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보상 승인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의족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양 씨 입장에서 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양씨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의족 손상 근로자에 산재 불승인
전문가들, “의족 신체 일부로 봐야...”



3월 27일 '장애인 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장애인 보조기 착용자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의 발정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의족은 신체가 아니므로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고 탈부착이 비교적 쉬우며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지 않고 보조하는데 그쳐 신체의 일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양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보조기가 신체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는 3월 27일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 보조기 신체 일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장애인보조기를 신체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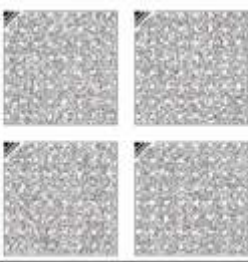
양 씨의 소송을 돕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원희 변호사는 “원심판결은 현행상 평등의 원칙과 장애인차별법을 위반해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위법을 범했다”며 “의족을 착용해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의 파손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비장애인이 생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어떤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운태 교수는 “의지를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의심할 의의는 없을 것”이라며 “의지를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는 것은 인공심장을 신체의 일부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

소리로 읽는 새보람



과 김정록 교수도 “절단장애인이 의지를 착용하는 것은 없어진 신체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라며 “의지를 소실된 신체 부위를 보조하는 인공적 장치라기보다 외관 및 기능을 대체하는 신체 일부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과 가나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양 씨는 토론회에 참석해 “말썽한 다리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고 장애인에게 다리나 마찬가지로 의족이 손상되면 산재 처리가 되지 않는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의족 없이는 걷지도, 일을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너무 서럽다”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멀리 감정이 있을 때는 의족에 대한 걱정으로 매번 불안하다”며 “의족은 신체의 일부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라며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더 줄여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호조치 가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관에 직무교육 실시 권고

경찰이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을 보호조치 한 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A씨(36세)를 2004년 행방불명 됐고 보호조치 소자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낸 A씨의 입원 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지체 3급 장애인 A씨(36세)는 2004년 행방불명 됐고 보호조치 소자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낸 A씨의 입원 사실 통지서를 받았다.

B씨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지만 A씨가 이미 퇴원 조치된 후였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경찰관에 의해 입원조치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경찰관들이 A씨를 응급입원 시키고 A씨의 주소지를 파악했음에도 가족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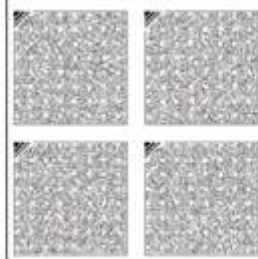
담당 경찰관은 “A씨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가족에게 연락을 원하느라 늦었으나 A씨

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이 경우 성인인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해 통지하지 않는 것이 보다 인권적 조치”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실행할 때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를 파악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A씨의 연고자를 파악하거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가 강력하게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신착란이 의심되어 구호조치된 A씨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드려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후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는 취약가구 위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4월 중으로 조달청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부터 중증장애인가구에 화재·가스누출·활동감지 센서, 가스차단장치, 게이트웨이(통신장치)를 설치, 1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외상중증장애인 가구에는 맥박 센서와 CCTV를 설치해 응급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11월부터 서비스 본격 시행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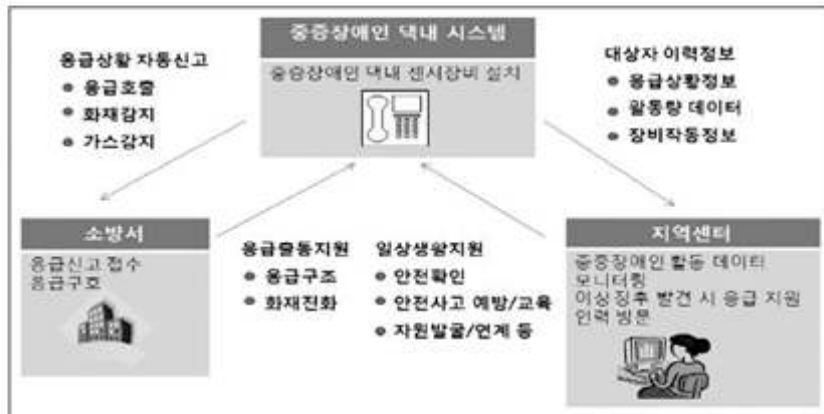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화재·가스누출 등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서 등과 연계, 지역 사회 기반의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4월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화재로 인해 중증장애인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상시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증장애인 가구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응급상황 정보가 소방서와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로 실시간으로 전송돼 신속한 구조 및 구급 등의 응급안전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센터는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개념도. ©보건복지부

또한 이웃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을 발원, 응급상황 발생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응급안전망도 별도로 마련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참여 의향, 지역사회 소방서 연계, 사업

비 자부담 등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우선 서비스대상 인원이 50명 이상인 지자체 2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울산, 서울(강서,

종로, 마포), 대구(서구, 북구, 달서구), 경기(성남, 의정부, 수원, 안산), 충북(충주), 충남(천안, 부여), 경북(안동), 전북(전주), 제주 시 등이다. 대상자는 상시 보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활동지원 수급자(1급~2급 장애인) 중 독거

4월부터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편의제공 거부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시각장애인 김 씨는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려 나갔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그는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인터넷 쇼핑물 사이트의 웹 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김 씨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상 편의제공 의무기관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11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의 범위가 고용분야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작업장, 교육분야의 경우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경우 동네 의원 및 약국 모든 법인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의사소통 분야의 편의제공 기관은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갖춰야 하므로 법인이 운영하는 쇼핑물은 시각장애인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고용분야의 의무기관은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진료를 위한 근무시간 변경 및 조정, 단차가 제거된 주차입구, 경사로, 전용 작업대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분야 의무기관은 시·청각 장애학생에게 점자자료, 확대출력자료, 음성파일 등의 형식으로 대체자료를 제공하거나 계단 이동이 불가능한 학

생에게 학습지원 도우미를 지원해 이동을 보조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장애

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인권위 판단 결과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거부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내려지게 된다.

시정 권고를 불이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다시 판단을 거쳐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되며 시정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확대된 편의제공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그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 및 지도를 시행함으로써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면제차량 배기량 기준 개선 필요성 제기

정책솔루션위원회, 안전행정부에 정책건의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최근 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확대해줄 것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고 4월 4일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이동편의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 승용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1995년부터 2000cc이하에 적용되어 현재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장애인보장구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휠체어 등을

차량에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LPG연료차량은 트렁크의 유동면적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비해 협소해 불편을 겪는 장애인들이 많다.

이에 정책솔루션은 "안전행정부는 현행 2000cc로 제한되어 있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차량의 배기량 기준을 2500cc로 확대하거나 2000cc초과 차량을 구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자체 규정을 마련해 2000cc를 초과하는 배기량 만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발굴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장애인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

휠체어로 오르는 근교산 자락길 조성

서울시, 인왕산 등 5곳...연말 개통

장애인이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오를 수 있는 근교산 자락길이 올해 서울에 있는 5개 산에 조성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올해 연말까지 종로구 인왕산, 동대문구 배봉산, 서대문구 안산, 동작구 서달산, 강동구 고덕산에 무장애 숲길 5.2km를 포함한 근교산 자락길 총 16km를 추가 조성·개통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근교산 자락길은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낮은 산자락에 폭은

넓고 경사는 완만한 길을 조성해 평소 산을 쉽게 오를 수 없었던 보행약자들도 쉽게 오르기 쉽게 만든 산책길이다.

서울시는 2011년 성북구 북한산과 양천구 신정산을 시작으로 2012년에 마포구 배봉산, 관악구 관악산, 서대문구 안산에 자락길을 개통한 바 있으며 2014년까지 14개소 총 30.6km의 무장애 숲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조성되는 자락길은 인왕산 1.8km, 배봉산 2.7km, 안산

6km, 서달산 1.5km, 고덕산 4km 등 총 26km로 이에 총 57억원이 투입된다.

자락길 16km 구간 중 무장애 숲길 5.2km 구간은 휠체어,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바닥에 목재데크를 깔아 평평하게 만들어 보행약자가 산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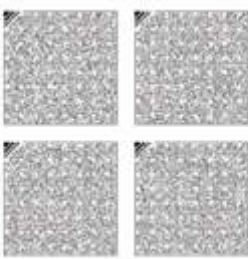
특히 목재데크 구간은 자락길을 오르내리는 이용객들의 상호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50m마다 교차공간을 조성하고 20m간격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이용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들은 우회길을 조성해 보호하고 자연소재를 활용해 순환형 코스로 조성한다.

동대문구 배봉산 자락길의 경우 총 2.7km 구간 중 휘경동 동성빌라 뒤쪽에서 시작하는 입구부터 대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숲이 양호한 0.9km 구간을 무장애 숲길로 조성하게 된다.

충분한 휴게공간과 의자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

소리로 읽는 새보람



모하고 자연 친화형 유아숲 체험장도 연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서대문구 안산은 작년 등산로 입구부터 1.7km 구간을 무장애 숲길로 조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무장애 숲길을 포함한 자락길 총 6km를 연계 조성해 안산을 한 바퀴 순환하는 총 7.7km의 자락길을 조성, 개방하게 된다.

“장애인도 안전하게 운전연습해요”

대구대, 중증장애인 운전 시뮬레이터 개발



중증장애인용 운전 시뮬레이터 시범장면. ©대구대학교

대구대학교(총장 홍택물)가 국내 최초로 중증장애인용 운전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

대구대 연구팀(김용철 재활공학 교수)은 한국연구재단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상 운전 시뮬레이터 개발' 과제의 일환으로 장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대구대 장애인 운전재활센터에 배치했다.

대구대 연구팀은 지난 2009년 장애인들이 실내에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운전재활센터'를 개소해 운영해 오던 중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운전 시뮬레이터의 개발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에 박차를 가해왔다.

새로 개발한 운전 시뮬레이터

는 스마트 인터페이스 운전시스템을 도입, 아이폰 등 스마트 기기를 조향장치로 활용해 중증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지 장애인의 경우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족동식 조향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중증장애인들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근력 및 관절 동작 범위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운전 보조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7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과정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운전 보조 장치의 개발이 절실했다.

이번 개발로 제대로 된 운전 연습여건이 부족해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취업을 통한 자활에도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구대 운전재활센터는 석박사급 인력을 미국 운전재활협회(ADED, Association for Driver Educators of the Disabled)에서 주관하는 운전 재활 전문가 연수 과정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운전 재활 훈련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김용철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60, 70년대부터 경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독립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지원이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에서 자활의 꿈 키운다

자활연수원 기공식...내년 개원 예정



내년 하반기 충주시 안림동 계방산 자락에 개원 예정인 자활연수원 조감도

자활사업의 도약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자활연수원 건립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자활연수원 건립 부지에서 '자활연수원 기공식'을 개최하고 자활사업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자활연수원 건립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에게 간병,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및 고용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는 충주시 안림동 계방산 자락 약 3만㎡ 대지에 2개동, 4층 규모로 자활연수원을 건립한다.

이로써 자활사업 참여자 9만여명과 종사자 5천여명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활연수원에서는 근로능력 미약자들이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집수리, 도배, 청소 등의 실무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활연수원은 내년 하반기 개원 예정으로 인접 부지를 포함한 전체사업 부지 14만㎡가 사회복지교육타운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은 기공식 기념사를 통해 “자활연수원을 통해 자활사업이 탈빈곤을 향해 한 단계 개선될 것”이라며 “자활연수원을 국민들이 제도약의 기회와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는 힐링캠프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4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 준비 이상무

대한장애인체육회, 현지 대회진행상황 점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윤석용)가 2014년 장애인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러시아 소치에서 경기장과 선수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쳤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3월 18일 소치에서 열린 ‘2014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단장회의’

에 김우성 KPC(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4명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경기장과 선수촌 등에 대한 현장 실사와 수송, 숙박, 경기운영, 보안 및 선수촌 운영 등에 대한 각종 현황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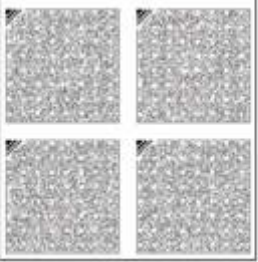
또한 조직위원회 공식회의에 참가해 IPC와 참가국 대표단과의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했다.

개최국 러시아는 장애인올림픽대회를 비장애인올림픽대회 못지않은 성공적인 대회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모든 시설은 신속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오는 10월 모든 경기장, 선수촌 및 기타 편의시설의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4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개국 6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소리로 읽는 새보람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킥링, 스노우보드 등 6개 종목에 63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11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막

나흘 동안 1000여명의 관객 찾아

‘제11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4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1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처음 영화제를 시작하면 초심의 마음을 다시 다지는 자는 의미 담은 ‘초심에 욕심을 품고’란 슬로건하에 열린 이번 영화제의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는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천막농성 중인 장애인을 비롯한 비장애인 활동가들과 축제를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 개막식 다음날부터는 대학로 CGV에서 영화제가 진행됐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 26편



4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개막식 모습.

의 영화가 관객들을 찾았다.

개막작으로는 칠거지악에

삼며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

는 전신마비 아버지와 딸의 이

아기를 내용으로 한 김진호 감

독의 ‘가위에 놀란’이, 폐막작

으로는 후천적 장애인으로써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린 주명희 감독의 ‘파인더(Finder)’가 선정됐다.

또한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간의 갈등과 현실을 돌아본 조국근 감독의 ‘온달엄마와 평강공주딸’, 탈시설한 장애인 씨의 자립과정을 그린 현정민 감독의 ‘성북동 회영씨’ 등 선정작과 2009년 장애인자동차 노동자들의 시청 앞 무장 모습을 담은 ‘대한민국 투쟁 이야기’ 등 연대작이 상영됐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난해 화재 사고로 숨진 김주영 활동가를 기리는 추모작 ‘외출 혹은 탈출 12분’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은 고인이 생전 장애인영상미디어교육을 받으며 만든 작품으로 ‘제4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다.

전시관 스마트하게 이용하세요!

서울시, 모바일 전시관 서비스 실시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 5개 전시관의 주요 전시물에 대한 모바일 관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3월 ‘모바일 서울(m.seoul.go.kr)’에 ‘서울 모바일 전시관’을 오픈하고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형제천문화관, 몽대문화사관, 수도박물관 등 서울시 산하 5개 전시관의 240여개 주요 전시물에 대한 모바일 관람 서비스를 실시 중이

다.

또한 전시관 내 전시물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해설 영상과 차별 있는 박물관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수화 영상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한다.

전시관 관람객은 전시물 안내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각 전시물의 안내 영상을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소지한 관람객은 각 전시관의 무선 인터넷을 이용

해 전시안내영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못한 관람객은 전시관 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기기(태블릿 PC)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조봉연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은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시관 관람 영상 제공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차별 없는 관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가족 희망 나눔 수기공모전’ 개최

문예 및 미술 분야...5월 3일까지 접수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5월 3일까지 ‘장애인가족 희망 나눔 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문예(시, 산문)와 미술(회화, 공작품)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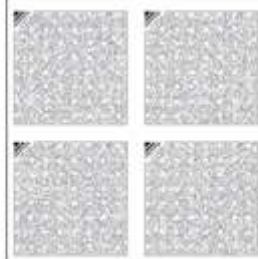
문예분야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시 A4 1장, 산문 A4 5장 분량으로 작성해 이메일

(kpat2000@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미술분야는 중·고등학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자유주제로 회화, 공작품을 완성한 뒤 방문 및 우편접수(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13-277 스타키빌딩 3층) 하면 된다. 단, 공작품은 시각장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총 102 작품을 선정해 상금 및 보전복지부장관 상을 수여하며 입상작품은 책자로 발간된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5월 4일 세계 장애인 휠체어 육상 '별들의 전쟁' 이 시작된다!

장애인 ·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경기도 진행...한강변 달리며 봄 만끽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가 오는 5월 4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지난 21회 대회 하프코스 경기 모습.)

■ '별들의 전쟁' 최후 승자는?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회에는 세계 장애인 휠체어 육상의 톱 클래스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2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1시간18분25초로 세계 기록을 세운 캐나다의 조시 캐시디(Josh Cassidy, 29), 2012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세계랭킹 3위인 미국의 조수아 조지(Joshua George, 29)와 여자부 세계랭킹 1위인 아맨다 맥그로리(Amanda McGrory, 26)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출전으로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2010년, 2012년 우승자인 일본의 호키노우에 코타(Hokinoue Kota, 39)와 2011년 우승자인 스위스의 마르셀 욱(Marcel Hug, 27) 선수의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두 선수는 지난 2011년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의 대결을 펼친바 있다.

한국 장애인 육상의 간판스타 홍석만(38),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김규대(29) 등 한국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석만 선수는 '2011년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을 수립한바 있으며 지난해 열린 대회에서는 전체 9위를 차지하며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김규대 선수는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 동메달리스트로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200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어니스트 빈다이크(Emsi Van Dyk)가 세운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신기록(1시간 21분 46초) 갱신 여부도 뜨거운 관심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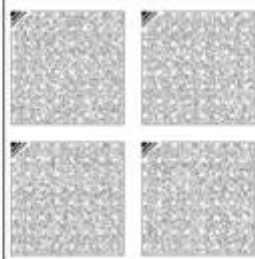
올해는 장애인 휠체어 육상 명인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 전 세계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시선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다.

올/아프 코스 참가국 및 참가선수 현황

연번	국가명	참가선수
1	한국	14명
2	미국	5명
3	일본	19명
4	러시아	6명
5	캐나다	2명
6	덴마크	1명
7	스위스	1명
8	프랑스	1명
9	멕시코	1명
10	호주	2명
11	베트남	2명
12	몽골	1명
13	아루바	1명
합계	13개국	56명

(4월 15일 기준)

소리로 읽는 새보람

제21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THE 21st SEOUL INTERNATIONAL WHEELCHAIR MARATHON

9km 코스 경기는 경쟁부문과 어울림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진·지난 21회 대회 9km 경쟁부문 경기에서 출발선을 통과하고 있는 선수들.)

■ 한강변 달리며 봄 만끽하는 특별한 주말나들이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는 세계 유명선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레이싱 외에도 5km 경쟁부문, 5km 어울림 부문 경기가 진행된다.

5km 경쟁부문에는 휠체어 생활체육 선수들이 참여해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선보인다.

5km 어울림 부문에는 장애유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출전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잠실종합운동장을 출발해 한강변을 따라 청담교를 지나 잠실주경기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코스는 한강의 아름다운 경치와 서울 도심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환상의 코스로 봄맞이 가족나들이객들은 물론 연인, 친구, 동료 등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5km 어울림 부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자리로 더욱 의미가 깊다.

■ 조직위, 대회 준비에 총력

한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 이하 지장애협)는 이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이하 대회조직위)를 구성해 장부부처,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직위는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대회장과 인접한 곳에 선수 숙소를 마련했다. 또한 해외 선수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 위한 한국 문화체험 행사 준비도 한창이다.

아울러 서울시와 동부도로사

업소의 협조를 받아 코스 도로 상태를 확인, 하자가 있는 곳은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선수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

경 쓰고 있다.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구 소식지, 안내문, 방송 등을 통해 교통통제 시간 및 버스 우회구간 등에 대한 정보 사전에 광고하고 있다.

김정록 대회장은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장애인 스포츠 대회로 자리 잡은 만큼 그 명성에 걸맞게 참가 선수는 물론 대회를 찾은 모든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성숙한 대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조직위 측에 당부했다.

■ 대회개요

- 대 회 명 : 제22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도전과 극복, 서울의 감동을 세계로...'
- 기 간 : 2013년 5월 1일(수) ~ 5월 4일(토) (3박 4일)
※ 출발식 : 5월 4일(토) 07:40~08:00(서울잠실종합운동장)
※ 본경기 : 5월 4일(토) 08:00~11:00 (서울잠실종합운동장~성남일대)
- 개 회 지 : 서울잠실종합운동장 일대 마라톤코스(공인코스)
- 참가규모 : 총 13개국 15,000명(선수 3,000명, 자원봉사자 등)
- 대회종목 : 풀(42.195km), 하프(21.0975km), 5km 등 3개 종목
- 주요행사 : 문화탐방, 의무분류, 코스답사, 본대회, 5km 어울림대회 등
- 주 최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연맹
- 주 관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
- 후 원 :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 협 찬 : 신한금융그룹
- 지 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공식음료 : 포카리스웨트

■ 대회종목

종 목	거 리	경 기 구 간	예상인원	비 고
풀	42.195km	서울잠실종합운동장 일 ~ 성남 분당	100명	반환점
하 프	21.0975km	서울잠실종합운동장 일 ~ 서울 강남구		반환점
5km	5km	서울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300명	순환코스
5km어울림 (비경쟁)	5km	한강시민공원 일대	1,600명	순환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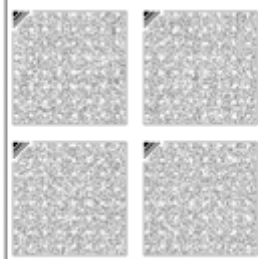
■ 대회일정

일 자	시 간	주요행사	장 소	비 고
5. 1(수)	09:00~	선수단 입국지원 선수단 입촌	인천국제공항 올림픽파크텔	입 촌 선수 등록
5. 2(목)	10:00~17:00	한국 문화체험	-	조직위원회
	08:30~11:30	코스답사	서울 잠실 - 성남 분당	기술위원회
5. 3(금)	13:00~20:00	5km 코스(경쟁) 선수 의무분류	-	의무위원회 조직위원회
5. 4(토)	08:00~11:00	본경기(출발)	서울잠실종합운동장 남문 광장	출 발
	11:30~13:00	시 상 식	서울잠실종합운동장	폐 회
5. 5(일)~	09:00~18:00	선수단 출국	인천국제공항	퇴 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강변을 달리며 봄을 만끽할 수 있는 5km 어울림 부문 경기가 코스로

소리로 읽는 새보람



■ 피카소를 꿈꾸는 순수청년

범진 군은 이미 두 차례의 개인전을 비롯해 각종 전시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어엿한 화가다.

특히 2009년에는 최인호 작가의 소설 '청소년 상도'에 삽화를 그려 넣어 화제를 낳기도 했다.

당시 최인호 작가는 범진 군의 2000년 출간된 자신의 소설 '상도'의 한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 범진 군을 보고 주변에서는 특별전형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라고 조언하지만 황 씨의 생각은 다르다.

"범진이의 꿈을 어떻게 펼쳐줘야 할지 항상 고민이 많지만 범진이가 자유롭게 즐기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특별한 작품세계를 지켜주고 싶기도 하고요."

범진 군이 실력 있는 화가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황 씨는 이제 범진 군의 매니저가 다 됐다. 범진 군의 전시회 때 마다 손수 도록을 만들고 액자를 들고 다니는 일 역시 황 씨 몫이다.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뿌듯하다고.

인터뷰 말미에 범진 군 본인은 화가로서 그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 질문을 던져봤다.

그러자 범진 군은 "그림을 그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림이 좋아요. 저는 피카소 같은 멋진 화가가 될거예요"라며 밝게 웃어보였다.

바라보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의 작품들. 그림을 그리는 그의 내면에 순수함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피카소를 꿈꾸는 순수 청년 범진 군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피카소처럼 멋진 화가가 되고 싶어요”

천재화가로 불리는 발달장애인 김범진 군



피카소를 꿈꾸는 발달장애인 화가 김범진 군과 그의 어머니 황진오 씨.

어린 시절부터 예사롭지 않은 그림 솜씨로 주위를 놀라게 했던 발달장애인 김범진 군(24세).

피카소를 꿈꾸며 꾸준히 그림을 그려오고 있는 그는 이미 여러 차례의 개인전과 단체전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작가다.

자신만의 특색 있는 작품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범진 군과 항상 곁에서 그를 응원하는 어머니 황진오 씨(52세)를 만나 봤다.

■ 자폐아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황 씨가 아들 범진 군의 장애를 눈치 챈 건 두 돌 무렵.

한 살 터울인 누나와 비교해 좀처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노는 방법도 달랐던 범진 군의 행동이 TV에서 본 자폐아의 특징과 너무나도 맞아 떨어졌다. 순간 범진 군이 자폐아임을 직감했다.

"그 당시 내 인생은 끝났다 싶었어요. 앞이 캄캄했죠. 다시는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황 씨는 병원을 가기 전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해 더욱 힘들었다고 했다.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내 아이가 정말 자폐아일까, 아닐까" 걱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머리로는 장애를 인식했지만 마음으로는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 했죠. 그러다 전문가를 통해 장애 판정을 받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면서 황 씨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러나 장애아를 키우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자폐아를 둔 후배 부모들을 만나 조언을 해줄 때마다 떠오르는 지난 시간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

장애아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황 씨 역시 범진 군을 키우며 가슴이 찢어질 내러왔던 순간이 다반사였다.

도레에 비해 자신이 뒤처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속상해하고,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받아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황 씨의 속은 더욱 타들어갔다.

"범진이를 지켜보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범진이의 고등 학교 입학한 한 해 미루고 쉬게 하기도 했죠"

하지만 늦게나마 한글을 깨치

고 부족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범진 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황 씨의 머릿속에서 '불행'이라는 단어는 점차 지워져갔다.

■ 그림에 천부적 재능 보이던 자폐소년

"범진이가 어렸을 때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자주 그렸죠. 그런데 범진이의 그림은 포레 아이들이 그리는 흔한 그림이 아니었어요. 보통 아이들이 자동차의 옆모습을 그리는 데 반해 범진이는 자동차가 앞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자동차가 제게 달려오는 것 같은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범진 군은 네 살 때부터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풍부한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했다.

"범진이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그대로 그리는 모작을 하더라도 똑같이 그리지 않고 변화를 줘서 자기화해 그랬어요. 예를 들어 다른 작가가 그린 나무를 단풍나무로 바꿔 그린대거나 인물을 그림 때도 보이는 대로 그

리기 보다는 특징을 잡아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 냈죠"

창작 열정도 대단했다. 하루에 스케치북 열권을 다 쓸 정도였다. 그렇게 좋아하는 TV 만화도 작품이 완성될 때 까지는 보지 않았다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릴 때만은 집중을 하더라고요. 범진이 본인이 어릴 때부터 그림만큼은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림에 대한 집념과 의지가 대단했죠"

범진 군의 재능을 발견한 황 씨는 한동안 화가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전문적 교육을 받도록 하지는 않았다. 범진 군의 그림이 기성화 되진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다.

그래서 황 씨는 수소문 끝에 자폐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미술학원을 찾았고 그 곳에서 범진 군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유지하며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가끔은 아들이 힘들고 피곤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학원을 잠시 쉬어보는 건 어떨겠느냐고 권유해본 적도 있지만 범진 군은 쉽 없이 그림 그리길 원했다.

이웃사랑 실천하는 새보람 요양병원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새보람 요양병원은 도심속에서도 자연친화적인 병실환경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희망을 안겨주는

재활요양치료 전문병원입니다.

내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정록)가 운영하고 있는 새보람 요양병원은 장애인 행사 의무대 활동지원, 장애인 방문의료서비스, 복지관과 협력한 지역연계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경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작년 5월부터는 지체장애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정형외과

이 외에도 병원생활에 무료해지기 쉬운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웃음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재활의학과

새보람 요양병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신뢰받는 병원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방과



장애인 행사 의무대.



맞춤식 재활치료 프로그램.



웃음치료.



어버이날 행사.

대표전화 02.3492.7888



서울시, 교통약자 위해 이동환경 개선

독섬역~서울숲 1.3km 구간 장애물 제거

올해 6월이면 독섬역에서 서울숲 구간의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교통약자가 장애물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해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 유형별 장애인,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독섬역~서울숲 1.3km 구간'을 첫 개선 대상지

로 선정했다.

대상지 선정에는 주변 지역의 낙후성, 개선 시급성, 개선 후 효과 등이 고려됐다.

서울시는 작년 7월 설계를 시작으로 3월 18일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갔으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도를 평면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보도와 차도 높이가 다르거나 경사로로 되어 있는 지점은 차도 바닥을 보도 높이와 동일하게 높여 평평하게 만들고 보도 위에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치했던 대리석 블라드를 제거한다. 또한 필요한 지점에는 고무 재질의 안전한 블라드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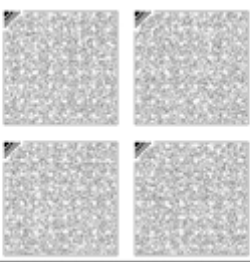
파손되거나 보도 위로 튀어나온 보도블록도 정비하며 이동을 방해하는 가로등, 노점 등도 이

전해 충분한 보행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노란색 유도블록을 깔고 독섬역~서울숲 구간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한다.

특히 집형과 선형 유도블록을 이용해 보행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차량 진·출입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소리로 읽는 새보람



이다.

이와 함께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모든 버스정류소에 벤치를 포함한 승차대를 설치하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대기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도 확보한다.

대구시, 장애인 맞춤형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4월 30일까지 접수...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장애인 가구 현관문 접근로 경사로 설치 모습. ©대구시

대구시(시장 김범일)는 시비 1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맞춤형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등록 장애인 중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장애정도, 소득수준, 가구 내 장애인 수, 자립의지 및 시급성 등을 평가해 20여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가구는 최고 5백만원

범위 내에서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희망 가구는 4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및 구·군청 장애인복지업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달성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5가구를 선정해 1천 9백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주시, '책나래서비스' 제공

도서 우편택배로 대출 및 반납

공주시 시립도서관이 '책나래서비스'를 시작한다.

'책나래서비스'는 '책에 날개를 달아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집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도서관 책을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용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1~6급), 청각·지체·신장·심장·뇌병변 장애인(1~3급)으로 장애인등록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구비해 본인 또는 가족이 도서관을 방문, 회원 등록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반도서관은 물론 집자도서관, 큰 글자 도서 등 1인당 최대 5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14일(1회 7일 연장가능)로 도서 수령에서 반납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오명규 시립도서관장은 "책나래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이 장애인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서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041-840-8955)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gongjullib.go.kr)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 확충

올해 37개 사업에 274억 투입

광주광역시(시장 강은택)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 따른 37개 사업에 274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난해 국토해양부 실태조사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

진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증차 운행, 저상버스 확충,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등이다.

광주시는 개선대책 실무반을 운영해 월 1회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의왕시,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

찾아가는 무한돌봄 SOS센터 운영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한돌봄 SOS센터'를 운영한다고 3월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사례관리사가 매주 화요일 이들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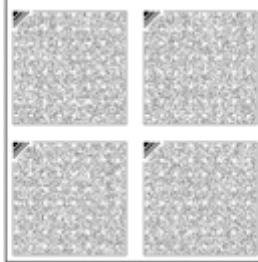
제공한다.

또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관 계부서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문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대상 탈락가구를 비롯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등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찾아가는 무한돌봄 SOS센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바로 시 무한돌봄 SOS센터로 제보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한편 지난달 말 대전시 사회복지시설은 570여 곳으로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73곳에 3억 3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 및 가스설비 등을 지원해왔다.

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안전·보건 지킴이' 활동

민·관 협력...장애인시설 등 14곳 점검·지원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계통건설(주), 한국타이어(주)와 함께 올해 '사회복지시설 안전·보건 지킴이' 활동에 들어간다고 4월 7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안전·보건 지킴이'는 지난 2008년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

설 종사자 및 생활자의 보건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 최초 민·관 협력 파트너십이다.

이들 기관이 올해 점검·지원할 시설은 아동시설 5곳, 장애인시설 5곳, 노인시설 3곳, 정신보건시설 1곳 등 모두 14곳이다.

대전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

한 종합적인 관리 및 추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계통건설(주)은 건설 분야 점검 및 기술지원, 한국타이어(주)는 기계설비 및 전기 점검 등 기술지원을 한다.

박용재 시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안전·보건지킴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맞춰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설이용자 및 생활자 모두가 편안한 삶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시스템으로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읍·면·동사무소로 신청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생활행동이 어려울 시술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300% 이하인 가구의 만 10세 미만 청각장애아동이며,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청각장

애아동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은 1인당 최대 65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 동안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

는 8명의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한 바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각장애아동들이 잃어버린 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안산시, '법률홈닥터' 운영

장애인에 법률상담 및 정보 제공

안산시(시장 김철민)는 4월부터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법률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정

책과 내에 변호사가 상주하며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 주민이나 복지업무 담당자에게도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종 계약 검토와

간단한 법률서류 작성을 돕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이송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덕 복지정책과장은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법률적 자문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법률홈닥터가 저소득층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과 ☎031-481-2832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시행

지체·뇌병변 장애인에 무료 재활서비스 제공

보성군(군수 정중현)은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3월부터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대상자 수준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 및 사회참여를 돕는 사업이다.

보성군은 보건소 신축 건물에 재활 운동실을 설치하

고 장애 상태별 재활 요구도에 따라 주2회 재활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주 1회 재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조관리 프로그램도 주1회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행되며 비용은 무료다.

기타 문의나 신청은 보건소 ☎061-850-5674로 문의하면 된다.

전라북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4월부터 본격 진료 실시

전라북도(도지사 김원주)가 오는 4월 중증장애인의 구강진료를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장애인 구강진료를 실시한다.

장애인은 스스로 구강위생 관

리가 어렵고 중증장애인은 간단한 치과치료에도 전신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치과전문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총 61

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전북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전북지역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문적 치과진료, 구강보건교육 및 치과응급의료체계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보다 질 높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Ⅲ

지난 호에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구분 및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과 발급절차, 관리, 재발급 그리고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무단 사용시 벌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 신청 및 발급 절차

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노인요양시설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자동차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등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및 운전 대리인은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자동차를 주로 운전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에 대해서 운전대리인(보호자 포함)이 운전하는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한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읍·면·동장은 관련 공무와 사실 확인(보호자 명의차량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차량의 장애인 사용 여부 등을 거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지라고 판단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보통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중 보통상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보통상 장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행정정보망 등을 통해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의료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두 다리를 절단한 경우 등으로 명백하게 보통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3)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

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 보통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 대여 및 리스차량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로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나) 시설대여 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시설대여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다) 보통상 장애를 증명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유형별 소관 전문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에만 해당한다).

(2) 읍·면·동장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표지 관리

가.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등이 전출할 시는 관련 자료를 전출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출한 경우 전입지 읍·면·동장은 표지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된

표지는 회수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하여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단, 시·도 구분이 없는 차량번호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증여·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 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주민등록을 변경한 경우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차량을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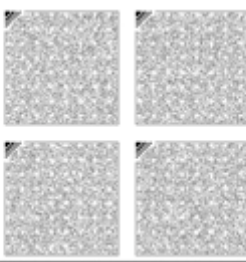
라. 장애인이 각종 차량관련 장애인복지시설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 확인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등은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만 지원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재발급

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표지를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거된 표지 또는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

소리로 읽는 새보람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 2010년부터 '보행상 장애' 대상에서 제외되는 6급 장애인에게 '주차가능' 표지 발급은 불가하며 본 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설명·홍보하여야 한다.

■ 벌칙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39조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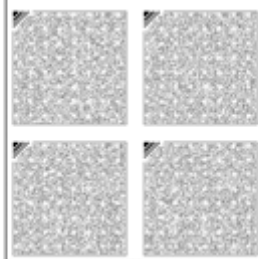
- 다만, 당해 위반 통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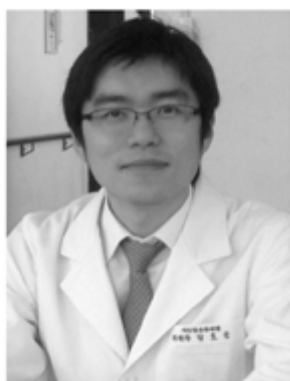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지체장애인복지시설중앙지원센터
편의증진국장 **윤연근**

소리로 읽는 새보람



운동으로 병을 고친다!



새보람요양병원 제2진료원장
남호균 (한의사)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을 한지 10여년이 되어 갑니다.

고향이 천리나 떨어진 곳이라 자주 가지 못하는데, 가끔씩 고향에 갈 때마다 제가 떠나온 그 시점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 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들도 모두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급속하게 늙고 있는 우리 사회를 발견합니다.

사회가 노령화 될수록 각종 퇴행성 질환에 고통 받는 환자분들이 많아집니다.

■ 퇴행성 관절염, 운동으로 치료

갑자기 기억력이 감퇴되기도 하며,

안 아프던 허리가 시큰시큰 신호를 보내오고, 어디든 한걸음에 달려갈 것만 같던 튼튼한 무릎이 삐걱대며 신음소리를 내게 됩니다.

퇴행성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오랫동안 관절을 쓰다 보니 관절이 낡고 해지면서 발생하는 병이지요.

그런데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기공체조를 통해서 관절운동을 했고, 멀리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요가를 통해서 관절운동을 했으며, 현대는 운동치료라는 이름으로 많은 운동치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관절을 많이 써서 아픈 질환에 운동을 시킨다니 어딘가 어색하기만 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콧속 뛰쳐오는 뼈마디가 '이제 그만'을 외쳐대는데 말입니다.

■ 본인에게 맞는 운동법 찾아야

얼마 전 무릎의 통증으로 내원하신 한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서 진통제도 먹어보고, 물리치료도 오랫동안 받아봤지만 몇 일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되는 통증으로 거의 치료를 포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의 문제점은 무릎

이 아니라 골반이었습니다.

보행시 골반을 잡아주는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여 골반이 뒤뚱뒤뚱 틀어지게 되면서 무릎에 자주 부담을 주게 된 것이죠.

골반이 무릎을 계속 괴롭히는 줄도 모르고 무릎에 진통제나 주사를 놓아서 '무릎이 나아라' 했으니 무릎이 낫지 않고 계속 재발했던 것입니다.

약한 골반 지지근육으로 인해 잘못된 보행을 하게 되어 운동을 하고 나면 더 무릎이 아프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단순한 걷기나 달리기 운동을 중단하라고 해드렸고 누워서 다리를 올리는 운동처방을 해드려 먼저 올바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면서 환자분의 무릎통

증은 점점 줄어들었고, 더 이상 무릎의 통증은 재발하지 않았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도 발생하지만 무엇보다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많이 했을 때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신체의 한 부분에 장애가 있게 되면 전반적인 운동의 패턴이 변하게 되면서 퇴행성 변화를 촉진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젊은 나이에 도 빈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기를 권하는 것은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을 촉진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처방이 필요합니다.



법률정보

황운상 (변호사)



Q) A는 B에게 10년 전 5백만 원을 빌려주고 1년 후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B는 돈을 빌려가고 1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는데,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이고 B의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아 당장 갚으라고 할 수 없었던 A는 10년 8개월이 지나도록 B에게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A) 권리가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민법 제162조는 제1항에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의 경우, 아무리 차용증을 받아 두었다더라도 10년이 지난 이상 소송에서 B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한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A가 B에게 10년 동안 계속하여 50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였는데 B가 돈을 주지 않은 경우였다면 어떨까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등이 있고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회

고(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고의 경우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회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중 하나를 하여 회고의 효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지 9년 5개월 되는 시점에 '내 돈 갚으라'고 전화나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를 하였습니다.(회고) 그리고 6개월 후인 9년 11개월이 되는 시점에 B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A의 경우 9년 5개월 되는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회고 시로부터 6개월이 지나 돈 빌려준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돈을 갚으라고 청구한다면 B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10년이 지나면 A

는 무조건 500만원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소송에서 주장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완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B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일부라도 갚았다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A는 재판에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A가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B가 밥을 먹은 후 밥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모든 권리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통일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4조에는 1년 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채권, 의복, 침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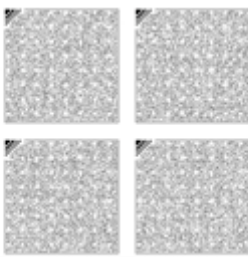
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속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의사나 변호사 등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163조)

그밖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 등 우리 법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멸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문제가 발생하시면 우선 권리의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하시어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황운상 : 전화번호 (042) 488-4141 팩 스 (042) 488-4131

소리로 읽는 새보람



민원상담

정연숙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여성정책팀장)



Q)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되나요?

A) 장애등급심사 없이 와상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적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입니다.

1급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나, 장애인원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도 가능 합니다.

Q)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법적 서식인 장애인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Q) 장애등급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의 장애등급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심층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완, 직접진단,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 질 수 있습니다.

Q)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국민연금증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급 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 (www.nps.or.kr) → 개인서비스 → 조회 → 전체보기 → 조회/증명 → 장애등급심사 진행상태조회

워크투게더센터 확대 운영 장애학생 취업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성규, 이하 공단)은 고용부 장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전국 6개 지사에서 워크투게더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경기 등 2개 지사에서 워크투게더센터를 시범 운영해오다 이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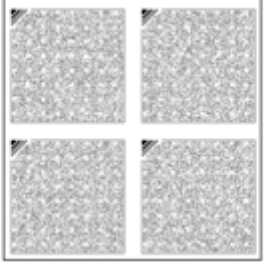
확대 운영하게 됐다.

워크투게더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컨설팅,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이미

체에서 1개월 ~ 6개월까지 실습할 수 있는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를 운영해 장애학생들에게 취업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각급 학교

소리로 읽는 새보람



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공단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학생은 공단 지사 ☎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이랜드월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동참 '글로벌 SPA판매사' 모집 시 장애인 채용 노력

스파오, 후아유, 미쏘 등 이랜드 SPA 매장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주)이랜드월드(대표 박성경)는 '글로벌 SPA 판매사' 모집시 장애

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지사장 채정환)는 4월 4일 (주)이랜드월드,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한

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와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이랜드월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서울지사는 장애인구직자 확보 및 맞춤형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서울서부고용노동지

청은 일자리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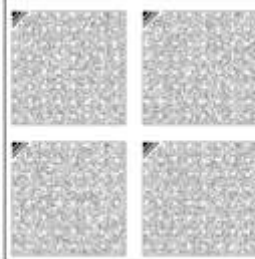
협약에 참가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도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채정환 서울지사는 "(주)이랜드월드에서 '글로벌SPA 판매사'로 매년 1천명 이상 채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협약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미화직	(주)휘세텍	서울시 여의도	65세 이하	남	아파트 외곽미화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2	서비스직	(주)선정인터내셔널	서울시 종로구	40세 이하	여	아웃바운드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3	서비스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5세 이	남	소독원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4	사무보조직	금융감독원	서울시 영등포구	50세 이하	무관	사무보조 및 행사지원	107만원	4대보험	02-2289-4321
5	운전직	(주)나라개발시스템	서울 전역	60세 이하	남	아파트 수목 소독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6	운전직	(주)지피솔루션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남	거래처납품 및 배송	월 16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7	검수직	현대엔앤소프트	서울시 동작구	20~30대	무관	네비게이션 검수	연봉24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8	경비직	삼우안전관리	경기도 의왕시	62세 이하	남	아파트 경비직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9	상담직	케이디텍	서울시 은평구	45세 이하	무관	상담직	월 120만원이상	4대보험	02-2289-4322
10	생산직	유니프라임	경기도 부천시	45세이하	여	조립업무	월 11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1	생산직	(주)정립전자	서울시 광진구	35세 이하	남	SMT업무/2교대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2	미화직	청인시메스비즈니스글로벌	서울시 강서구	60세 이하	여	미화직	월 126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3	시설관리직	국제안전시스템	종로 세운상가	40~50대	남	시설관리직	월156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4	생산직	미주산업	서울시송파구	45세 이하	무관	엑세서리 조립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5	서비스직	(주)코스트코	경기도 고양시	-	무관	대형마트 (진열, 캐셔, 안내 등)	시급 8,200원	4대보험	02-2289-4322
16	서비스직	(주)신양이엔지	서울시 노원구	50세 이하	남	건물 주차경비원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7	전문직	한솔기획	서울시 구로구	35세 이하	무관	편집디자인	면접 후 결정	4대보험	02-2289-4321
18	사무직	디케이유엔씨	서울시 영등포구	35세 이하	남	사무직	연봉180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9	경비직	한국경영관리	서울시 성북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소리로 읽는 새보람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LG유플러스, 'U+Vonation' 실시

오디오북 제작...시각장애인 문화격차 해소



LG유플러스는 임직원 105명과 예비 아나운서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각장애인을 오디오북 1천권을 제작한다.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재)는 서울점자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U+Vonation'을 실시한다.

'U+Vonation(Voice+Donation)'은 LG유플러스 임직원과 자원봉사자가 신간 시집과 문학도서를 낭독, 이를 녹음해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기부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또한 배우 조안 씨를 'U+Vonation'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한편 '목소리기부단'을 발족해 시각장애인의 문화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오디오북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점자도서관과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300여 곳에 보급된다.

Standard
Chartered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특수차량 기증 장애학생 돌보기 및 청소봉사도 약속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나섰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일반 교통수단으로 통학이 힘든 장애 학생들을 위해 특수 장비를 갖춘 차량을 제작해 특수교육기관인 안동영명학교에 기증했다.

이에 따라 장애 학생들이 학교와 집을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차량기증은 스탠다드차타드는

행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간의 아름다운 여정'이라는 주제로 모금한 사회공헌 기금으로 이루어졌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영남강원소매사업부 임광현 상무는 "장애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차량 기증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안동영명학교 기숙사 장애 학생 돌보기 및 청소 봉사도 꾸준히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6개 시·도 협회와 232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48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회원구분

일반회원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후원금 납부방법

- 지로, 자동이체 CMS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8-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d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2013년 3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병석, 강상훈, 김경희, 김구환, 김영진, 김정기, 김정태, 김정훈, 김진호,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환경, 남용원, 민속박상조희, 박소연, 박종현, 반형만, 서동녀, 서석범, 신병욱, 송호을, 우병훈, 무지현, 원종민, 유재복, 육근록, 윤재환, 이은정, 이진형, 이태훈, 임재중, 장병철, 장은정, 장추자, 장다문, 정선용, 주영희, 주승운, 주영래, 하정미, (사)한백정학회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480만 장애인들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D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용모
요령

*예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홍보협력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따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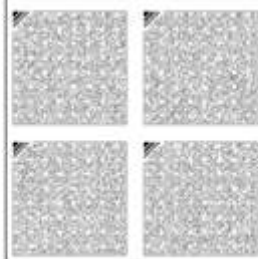
정답
힌트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물, 교통수단, 도로, 정보통신망 등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

1★		2		3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난호 정답

1. 삼	일	2. 는		3. 과	4. 학
계		5. 세	상	6. 물	정
탕		미		울	
	7. 창	인		교	
	미			8. 환	염
	9. 전	도	10. 금		오
11. 투	쟁		12. 화	통	점
				정	

| 가로열쇠 |

1. <의학> 갑자기 일어나는 발작상의 두통.
3. 으깨어 양념한 고기를 돼지 창자나 인공 케이싱에 채워 만든 가공 식품.
5. <법률>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법인.
7. 주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열차 따위가 달림.
9. 일시적인 편의.
11. 소의 머리, 내장, 뼈다귀, 발, 도가니 따위를 꼭 삶아서 만든 국, 또는 그 국에 밥을 만 음식.
13. <의학> 주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걸리는 호흡 계통의 병. 보통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가 아프다.
15. 괴도라치의 새끼. 흰색이며 이것을 말린 것이 뱀어포이다. 충청남도 서산에서 많이 난다.
16. <철학> 해결에 의하여 정식화된 변증법 논리의 삼 단계. 곧 하나의 주장인 (정)에 모순되는 다른 주장인 반(反)이, 더 높은 종합적인 주장인 합(合)에 통합되는 과정을 이룬다.

| 세로열식 |

1. <인명> 고구려 제25대 평원왕의 딸로 바보 온
달과 결혼하여 학문과 무예를 가르쳐 훌륭한
장군이 되게 한 공주,
2. 신문사나 잡지사, 방송 사업체 따위에 뉴스를
제공하는 기관,
3. <법률> 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민사, 형사, 행정, 군사 법원법 따
위를 이른다.
4. 아는 사람 혹은 사람의 품됨이를 잘 알아봄,
6. <법률>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
리,
8. 조리가 없이 말을 이리저리러움 지껄임,
10. 마음이나 뜻이 서로 맞음,
12. 빛이나 요즘, 세균 따위의 들어야 할 것을 삭
쳐 줌, '덜어 줌', '아주 덜어 줌'으로 순화
14. 이미 결정되어 있음,

당첨자

3월호 정답

삼학도

노미라 전남 목포시 산정동
이화정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경숙 서울 노원구 월계동

다른 그림 찾기 DIFFERENT SEARCH



사진설명

3월 21일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취업 전 교육'에서 진행된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



매달 정답자 세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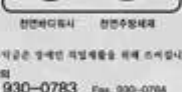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원을 생략하는 작업의 모든 원소는
확정행위가 아닌,
작업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향료, 천연색소와 피앙종 원료 가운데 적당하고
경유를 피함으로써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최화공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힐로로, 스프레스와 용해물질을로, 지독하고 쓴살린 달인의 지루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임피 리누는
본격학습업계 최초 190,500원정액영리스별인증 및 18712300원정액영리스별인증 받은 계정을
제공하여 인증 수 있습니다



포가브피델, 원만결합 수직결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합니다.

■ 문의
Tel. 930-0783 Fax. 930-076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fnalc.or.kr>

요무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다른 두부를 표시하고 (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보협력팀>

※연력 가능한 전화번호를 땀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장애인민원상담 실무자교육



■ 행사개요

- ◇ 행사명 : 2013년 장애인민원상담실무자교육 개최
- ◇ 일시 : 2013. 5. 16(목) 13:00 ~ 17:00
- ◇ 장소 :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 ◇ 참가인원 : 200여명
-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행사세부일정

- ◇ 사례를 통한 국민기초생활의 이해
- ◇ 불만고객 응대법 (고객응대이미지메이킹)
- ◇ 2013 변경된 장애인복지시책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KAPPD Korea Association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